

본 총평은 201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실시한 온·오프라인 모의논술에 참가한 전체 응시자에 대한 총평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각 문항별 해설과 본 총평을 참고해서 2015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문항 총평

본 모의논술 공통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논제에 충실한 답안이 높은 성적을 받았다. 즉,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혔는지 그리고 두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들을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비판하였는지를 체크하였다. 아울러 답안에 군더더기나 비문 혹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없는 답안이 좋은 답안으로 선택되었다.
2. 너무 안전한 논술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을 단순히 반복하여 정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제시문에 충실해야 하지만, 논지를 따르는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
3.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와 <나>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논할 때, <다>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는 확장편향의 단점을, <나>는 집단사고의 장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제시하면, <다>를 가지고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틀을 잡은 뒤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4. 전체적으로는 제시문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제시문의 어구나 표현 이외에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여 비교, 대조해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어법과 어휘력에 대한 훈련을 주문하고 싶다. 가독성이 있는 매끄러운 문장이라야 논지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논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능력이다. 우수한 답안지로 선택된 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글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을 잘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락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연결시켜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

인문계열문항 총평

본 모의논술 인문계열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문 논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이해하고 비교·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시문 <가>의 ‘나’는 소비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나>의 ‘직장인’은 실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계발과 시간 관리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전반부는 이 둘이 가지는 일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실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배려에 의해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일의 의미라고 하는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태도를 평가하는 문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출제의도와 다른 답안이 상당수 있었다. 즉 <다>의 입장인 배려와 존재의 인정을 <가>와 <나>에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는 긍정적,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안이 많았다.
2. 출제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여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한다. <가>가 가지는 소비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 추구는 <나>가 보이고 있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모습과 서로 다르지만, <다>의 관점에서는 이 둘 모두 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한다.
3. 그 외에도 단락나누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답안과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답안도 상당수 있었다.

자연계열문항 총평

이번 모의논술 자연계열문항 답안을 채점하면서 채점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제 [2-1]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제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 높은 성적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논제 [2-1]에서 요구하는 700±70자 분량 답안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가>와 <나>의 규칙성 발견과정에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다>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정론에 대한 비판, 귀납법에 대한 비판, 지역적 결정론,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부터 규칙성을 찾는 것 등 <나>를 비판하는데 필요한 주요관점들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나>에 대해 단편적인 비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논제 [2-2a]는 초등학교에서도 다루고 있는 선분의 비율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수열과 수열의 수렴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논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황금비를 구하고 제시문에서 언급한 수열의 비가 이 황금비로 수렴하는 것을 보이거나, 황금비를 계산하는 식과 수렴하는 수열의 비가 같은 형태인 것을 보이면 된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에서 언급한 수열의 관계인 $a_n = a_{n-1} + a_{n-2}$ 를 기술했으나 이를 활용하여 a_{n+1}/a_n 이 황금비로 수렴하는 것을 보인 학생은 많지 않았으며 황금비를 계산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3. 논제 [2-2b]는 논리적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논제 [2-2a]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풀 문제이다. 하지만 4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가 80일 때 a 를 구하는 문제 풀이과정에서 수학적으로 답은 3가지가 나오고 어떤 근거에서 $a = 2$ 라고 언급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근거 설명 없이 2로 답을 하였으며 n 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에 대한 일

자연계열문항 총평

반식을 유도한 학생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풀이형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수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와 수학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가를 물어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식이 주어지면 이를 푸는 것은 어느 정도하는 것 같으나 상대적으로 수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독해력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NO. 1

<가>의 확증편향은 자신의 가치관을 옳다고
 입증해주는 근거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이러
 한 경향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같은 생각을 가
 진 단체 안에서만 활동을 함으로서 더욱 강화된
 다.

<나>의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
 성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만
 장일치를 이루려 하는 현상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화합적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
 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이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게 된다. 이러한 집단사고는 구성원들 간
 단결이 뛰어나거나 서로 공통된 사고체계를 공유
 하고 있을 때 더욱 강화된다.

<가>의 확증편향과 <나>의 집단사고는 모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반대의 입장을 배제하거나
 오류로 치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확증편향은
 분명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다. 이와 비슷하게 집단사고 또한 구성원들과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확증편향이 개인들 사이에서 개인이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비해 집단사
 고는 한 집단 내에서 나타나 집단 외부와 충돌
 을 일으킨다.

<다>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뿐만 아니
 라 다른 의견들도 보고 들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많은
 것 즉, 자신과 같거나 다른 입장 모두를 보고
 들은 뒤 옳은 것을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맹자 또한 결과의 원인
 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 다른 입장을 보
 지 못하는 확증편향과 집단사고는 그리 바람직하
 지 않다. 따라서 확증편향과 집단사고처럼 자신
 과 다른 생각들을 배제시키려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자신의 생각이

NO. 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자기편향적 사고의 모습 제시한다. (가)는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을 골라 수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정보만을 옹호하는 자기편향적 사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집단사고를 통해 비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보여준다. 집단이 바라는 결과와 통하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합의는 겉으로는 평화적인 결론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듯 했으나 결국 비합리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켜 집단사고의 폐단이 일어났다. 즉, (나)에서 또한 자기편향적 사고가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두 제시문은 자기편향적 사고의 주제에 따라 (가)는 개인적 (나)는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오직 자신의 의견과 성향에 따르는 개인적 사고의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에 (나)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통념에 따르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집단의 통념에 반하는 개인적 정보는 제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와 (나)는 사고과정에 있어서 보다 성찰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다)는 다양한 정보를 포용하되 의심되는 부분은 묵인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가)와 같이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정보, 즉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 없이 배척하지 말고, 말과 행동에 조심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것을 강조한다. 이는 (나)와 같이 집단사고의 폐단과 같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규명에 있어서 자기성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는 (가)와 (나)의 자기편향적 사고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심성 있는 행동과 자기성찰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 1

(가)와 (나)는 모두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통념을 입증하려할 때 의견을 확고히해주는 사례에만 집중하고 반례는 일부러 지나쳐버린다. 의심도 하지 않는 사고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오류들을 각각의 예를 들어 (가)와 (나) 모두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동조하는 사람끼리 모여 응집성과 단결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가)에서는 ‘인터넷’을 (나)에서는 ‘집단’을 증거삼아 주장하고 있다. 단체 속에서 편향된 사고는 더욱 강력해지고 공고히 세워진다.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사고의 발생 지점에 대해 (가)와 (나)는 차이를 보인다. (가)는 사고의 출발점을 개인에서 본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각각 주장하는 개인의 예를 들면서 비판적인 증거에 눈을 감는 주체가 개인임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나)는 ‘집단사고’라는 예를 들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도전하는 정보는 철저히 차단하여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집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가)에서는 개인이 모여 이룬 집단의 유대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만 (나)에서는 ‘시간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편협한 사고 체계는 여러 가지 생각의 폭을 좁힌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갈등을 빚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의 관점에서 볼 때 해결 방안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귀와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만이 진실된 결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 먼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집단 속에서라면 집단 자체가 가진 생각이 반대되는 사례를 단지 외면한 것은 아닌지 집단 내에서 성찰해야 한다. 집단 속에 속해 있는 ‘나’라면 집단이 가진 화합적인 유대감에 이끌려 혹은 자신만 독립되는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의심을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NO. 1

〈가〉에서는 확실한 유전적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냈고, 그것을 통해 규
칙성을 발견했다. 암별과 수별이 태어날 때 필요
한 부모는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예측을 통
해 규칙성을 찾아낸 예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래의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는 없지만, 변동된 주기를 파악함으로써 주식이
격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언
한다. 엘리어트는 이러한 현상을 일정하고 객관
적인 법칙에 의해 일어난다는, 즉 결정론의 입
장에서 이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필연적인 것’과 ‘우연
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객관적 진리라
고 주장한다. 과학은 예측 불가능함, 비결정론
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그 안에서 과거의 자료
에서 수 많은 규칙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말하
는 과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과학이란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된 것이 아닌, 과학적 객관성과 불확
실성이 공존해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우연한 현상이 포함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하여 규칙성을 찾고 있으며
그것에 결정론을 적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
하려 하는 과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록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규칙이 일정하다고 할
지라도 과학의 예측 불가능함을 고려하면 규칙은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규칙을
통해 미래의 상황이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